

## 어서와, 칠곡으로

일상에서 칠곡을 누리는 방법



## 칠곡의 자연, 백배 즐기기 가족과 함께 떠나요, 한티재로!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 한가득인 칠곡이다.  
한가로운 주말, 파릇파릇한 새싹이 우리를 반겨주는 한티재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떠나보자. 크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싱그러운 바람이 가득 우리 가슴에 들어온다.  
따스한 봄햇살을 느끼며 가족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  
생각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위치 :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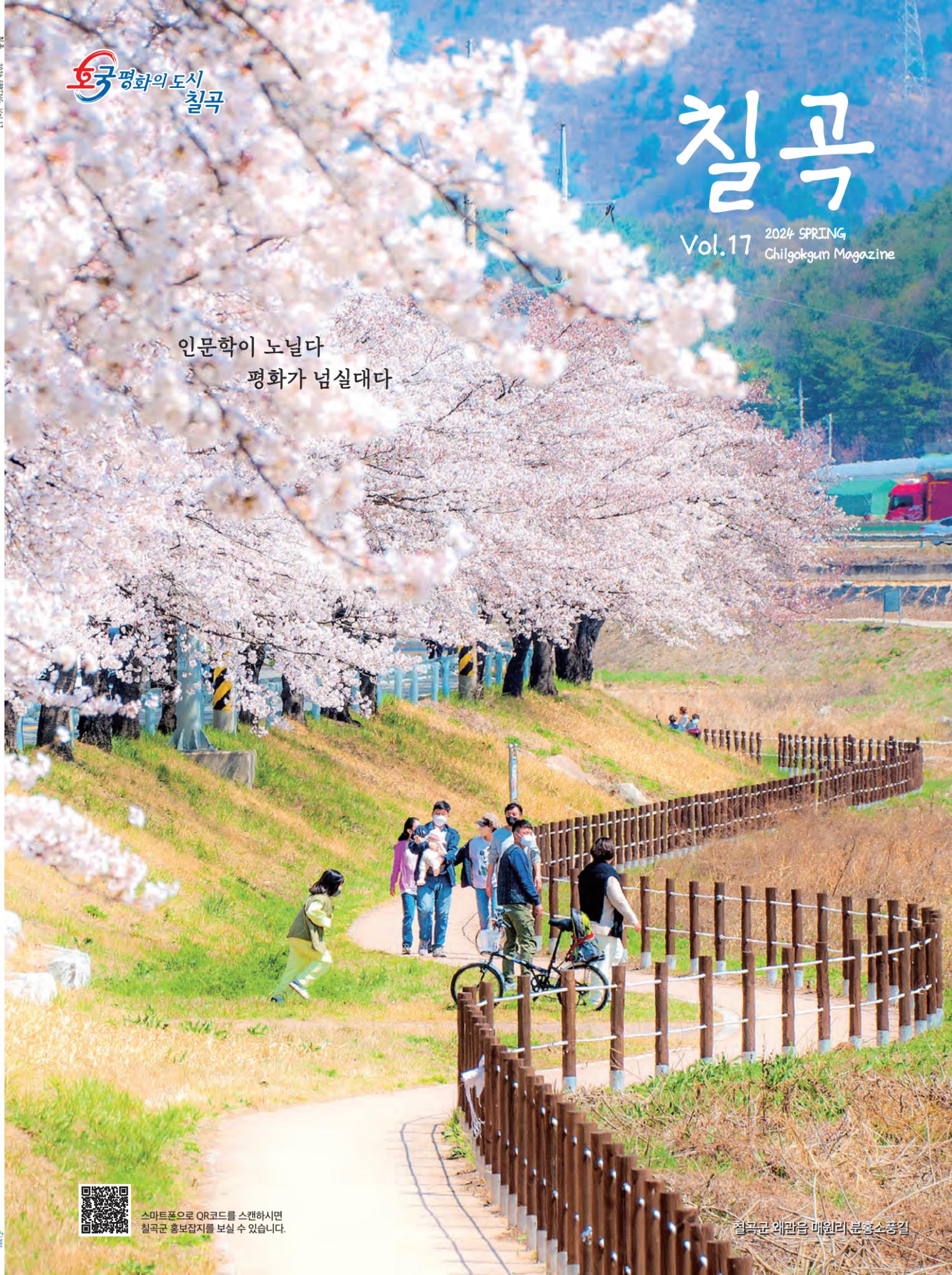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

# 칠곡

Vol.17 2024 SPRING  
Chilgokgun Magazine

인문학이 노닐다  
평화가 넘실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칠곡군 홍보장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분홍소풍길

# 칠곡과 문화를 잇다

CONNECT CHILGOK WITH CULTURE

기분 좋은 문화가 흐르는  
도시를 만나다

문화·관광 산업으로  
지역만의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법정문화도시 칠곡.  
일상의 행복을 일깨우는 평화의 도시에서  
오감이 만족하는 문화관광을 누리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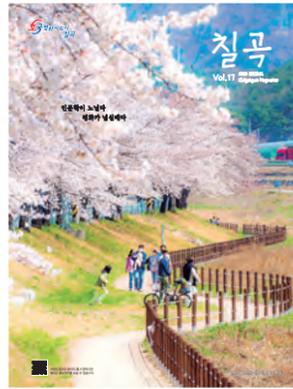
# CONTENTS

2024 SPRING Vol.17

Chilgokgun Magazine

## 칠곡

인문학이 노닐다  
평화가 넘실대다



### Cover Story

####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분홍소풍길

매년 벚꽃을 구경하러 오는 상춘객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는 칠곡의 대표 봄맛이 명소다. 대구 과학수사연구소 방향 쪽으로 동정천을 따라 약 600~700m 구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처 칠곡군

편집인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발행처 우)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전화 054) 979-6013 팩스 054) 979-6059

홈페이지 www.chilgok.go.kr

기획·편집·제작 동아문화사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칠곡군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실린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 행복 채우고

06

### 칠곡투어

자전거길, 그 위에서  
칠곡의 봄을 만끽해요!

10

### 인문을 7해

왜관 그 위의  
길, 멋, 맛!

14

### 럭키칠곡

나는 예태미술관으로  
봄나들이 간다!

16

### 같이, 가치

봄, 제철 맞이한  
칠곡 벌꿀참외 드이쇼!

## ● 화합 살리고

18

### Now 칠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칠곡은 지금, 'eco칠곡'합니다!

20

### Let's 칠곡

칠곡 할머니들이 만드는  
유일무이 K-할매 콘텐츠

24

### 칠곡인기척

경북 최강  
칠곡군청 레슬링팀을 만나다

26

### 칠곡애향만

곳곳에 울려퍼지던 독립의 함성  
칠곡의 독립유공자  
강원형·장석영·장진홍

## ● 기쁨 늘리고

30

### 칠곡이야기

"농업 발전과 후계농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기술 명장 4인

32

### 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 News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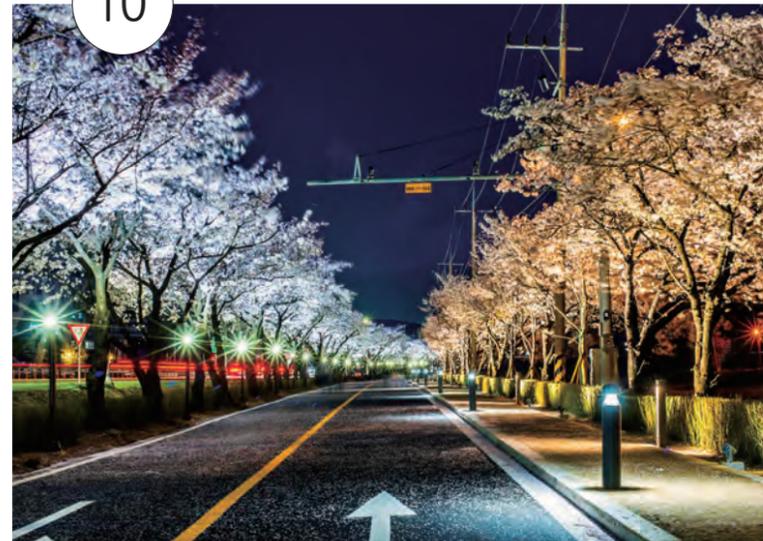
### 독자마당

독자후기 참여 알림  
퍼즐로 만나는 칠곡의 명소



제시된 QR코드를 통해 칠곡 소식지를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10



23



31





# 자전거길, 그 위에서 칠곡의 봄을 만끽해요!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봄이다.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끼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고민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이다. 타 지역에 비해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라이더들의 호평과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 바로 칠곡이다.

## 🌻 노란 물결의 금남리 자전거길

칠곡보를 뒤로 하고 대구방향으로 이어지는 왜관읍 금남리 자전거길은 봄의 절정인 5월이 되면 자전거길 양 옆이 금계국으로 장관을 이룬다. 노란 꽃잎을 가진 금계국이 강바람에 산들산들 흔들거리며 만들어낸 노란 물결은 그 자리에서 곧장 카메라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자전거를 타며 한참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절경을 위해 이 시기가 되면 수많은 라이딩족이 이곳을 찾는다.

Gumnamsan-ri Bicycle Road



##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낙동강자전거길

### 🌸 석적체육공원에서 흥방~!

국토종주자전거길의 일부구간이 낙동강변을 따라 이어진다. 칠곡군 총구간은 약 24.4km인데, 구미와의 경계에서 멀지 않은 석적체육공원에서부터 라이딩을 시작하면 딱 좋다. 칠곡보를 지나 왜관읍 금남리 자전거길까지 자전거로 약 1시간 30분의 여정이다.

Naldonggang River Bicycle Road



라이딩의 첫 시작인 석적체육공원은 자전거로 그냥 '쓰윽' 지나치기 다소 아쉬운 구간이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생활체육기구를 갖추고 있다. 또 봄이 되면 공원을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개화하기 때문에 벤치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기 그만이다.

## 🏠 꿀맛 같은 휴식, 칠곡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면 금새 칠곡보에 다다른다. 바람에 일렁이는 잔잔한 수면 위에 내려앉은 산 그림자와 흰 구름이 한쪽의 수채화처럼 느껴진다. 라이딩하다 만날 수 있는 호국의 다리를 통해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공세에 대해 처절한 전투를 펼쳤던 순국선열들의 흔적도 잠시나마 더듬어 볼 수 있다. 칠곡보 인근에는 숙소와 볼거리, 식당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토종주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매점도 있고, 냉난방도 잘 갖추고 있어서 수분보충과 허기를 달래려는 라이딩족들에게는 그야말로 '꿀맛 같은' 장소다.

3

낙동강자전거길은 경사가 거의 없는 완만한 길이 대부분이다 보니 초보자나 가족단위의 라이딩족이라도 어렵지 않게 장거리 주행에 도전해 볼 수 있다. 또 잘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 덕분에 보행자들과 뒤섞여 라이딩에 집중하기 어려운 도심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2



1





### 철곡보에서 시작해 철곡보로

2구간은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철곡보에서 끝난다. 철곡보에서부터 약목면 관호리를 거쳐 북삼읍 보소리 임도를 통해 다시 철곡보로 되돌아오는 총 3코스 구간이다. 이 구간을 지나칠 때 들르지 않으면 섭섭할 장소는 수변공원으로 잘 조성된 남계저수지다. 남계저수지에는 출렁다리, 정자, 인공폭포 등 각종 시설물이 산책로와 함께 꾸며져 있어 라이딩을 하다가 잠시 멈춰 휴식하기 좋다. 참외 재배지로 유명한 약목면담계 참외조형물도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인지 봄이 되면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듯하다.

From Chilgobbo to Chilgobbo



### 익사이팅을 원한다면 산악자전거길



### 포남리 ~ 신나무골성지

석적읍 포남리에서부터 시작돼 지천면 신나무골성지까지 이어지는 산악자전거길 1구간은 총 4코스로 이뤄져 있다. 코스와 코스 사이 진입도로와 마을안길도 포장에 잘 돼 있어 체력만 받쳐 준다면 1코스부터 4코스까지 자전거로 전부 둘러볼 수 있다.

코스를 라이딩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지천지는 둘레길이 잘 조성돼 있어,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다. 또 여름이면 지천지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도깨비 고개, '요술의 고개'도 있다. 요술 고개는 석적읍 망정리와 지천면 백운리를 잇는 군도 5호선상 '한골재' 고개 정상 부근에 있다. 이 도로는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은 약 180m 정도이다. 요술 고개를 체험해 보려면 지천면이라고 적힌 표지판 옆에 '시점'이라고 적힌 구간에서 내리막임을 확인하고 캔이나 공등을 도로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분명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데도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을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도로다.

Mountain bike path

산악자전거의 메카라고 불리는 경북, 그중에서도 철곡군은 산악자전거길이 잘 조성돼 있기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조성된 산악자전거길은 1구간(4코스, 총 67km)과 2구간(3코스, 총 33km)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규모 면에서 본다면 철곡군 전 지역을 산악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을 정도다.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재빠르게 인지한 철곡군이 지형적인 특색을 앞세우며 누구나 라이딩을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탓에 철곡은 어느새 MTB 동호인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봄·가을철 산악자전거길을 위해 철곡군을 찾는 방문객이 해마다 상당하다.



산악자전거길 노선을 보다 상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 Waegwan

어디론가 자꾸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코끝 찡했던 찬 바람이 따스하게 바뀐 탓도 있겠고, 삭막했던 풍경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로 다채로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 이왕이면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곳으로, 왜관으로 말이다.



## 왜관 그 위의 길, 멋, 맛!



### 오랜 역사 품은 곳, '왜관'

'왜관(倭館)'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왜구(倭寇)의 노략질이 심해 지자 회유책으로 포구를 열어, 일본인이 왕래하며 무역하는 것을 허가하게 한 일종의 공간이었다. 왜관이 설치됐던 곳은 부산 부근 및 서울, 약목의 관호동과 왜관면 금산2리(倭館面 錦山2里) 등 소왜관(小倭館)을 포함해 총 10개소였는데 그 지명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곳은 오로지 칠곡의 왜관뿐이다. 현 왜관의 중심지인 낙동강변은 당시에는 모래밭으로 인가가 없었으며 석전리 일대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 오히려 석전이라고 불렸다. 지금의 왜관은 경부선 부설시 일본인들이 역 간판을 왜관으로 달게 되면서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 '관찰아 거리'에서 느끼는 위로

'관찰아 거리'는 왜관역 맞은편 옛 왜관장터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왜관4리 골목에 그려진 벽화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이게 만들었듯이, 왜관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됐던 벽화 조성 사업이다. 왜관4리의 벽화가 골목길의 역사를 테마로 70년대 주민들과 낙동강의 모습, 북적이던 구장터 시절과 골목의 모습을 재현했다면 '관찰아 거리'는 산책을 하며 위로를 얻고 일상을 살아가는 활력을 되찾을 힘을 전해주고자 만들어진 거리다. 20분이면 기차나 차로 왜관에 도착하고 5분 걸으면 힐링할 수 있다는 일명 '205힐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는데, 아름다운 색채와 표현력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10대 천재 동화 작가 전이수 군의 작품 20점과 칠곡할매글꼴의 콜라보로 이뤄졌다. 현재 제주에 거주하며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2008년생 전이수 군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미난 그림으로 마을에 새로운 활기와 온기를 불어넣었다. 기성 동화 작가에게서는 느끼기 힘든 순수한 감수성이 한 스폰 가미돼 벽화를 더 정감있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돼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칠곡 할머니들의 글씨체가 더해졌으니,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벽화임에 틀림없다.

'괜찮아 거리'가 지난해 11월 완성된 만큼 아직 많은 홍보가 이뤄지기 전인데도 천재 작가의 그림과 할머니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감성 덕분인지 입소문을 타고 벽화를 보고자 왜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메마르고 지친 가슴에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면 '괜찮아 거리'를 걸어보길 추천한다.

☉ 왜관을 왜관리 258-90번지 일대

재부흥 시동 거는 미군 부대 후문 일대

왜관을 석전리 미군 캠프캐롤부대 후문 일대. 한때는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거리 일대가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다. 미군들이 넘쳐나고 밤이 되면 영문으로 된 네온사인인 화려함을 뽐내던 곳이었다.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은 탓에 미국 화폐인 달러를 쉽게 구경할 수 있었고,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기 위한 환전소도 곳곳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도 식사시간이 되면 군복을 입은 미군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좀처럼 맛보기 힘든 외국인 셰프의 이색 식당도 있고, 체격이 남다른 미군들을 위한 빅사이즈 옷 전문 판매 매장이 발견할 수 있다. 600m 남짓한 구간이지만 이곳만은 마치 별세계인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이런 이색적인 풍경도 세월의 흐름에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걸까. 촬영을 위해 찾아간 후문 일대는 과거의 시골벽적함보다는 고즈넉한 여유로움이 더 가득했다. 예전만 못한 분위기

에 울상을 짓는 상인들의 하소연도 간혹 들려온다. 이처럼 과거 시골벽적하던 모습이 그리운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해 '2023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로컬디자인 분야에 칠곡군이 선정돼 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후문 일대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디자인을 반영한 경관 개선과 보행로 정비도 이뤄진다면, 충분히 특색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때 칠곡 왜관 경제 1번지로 불리던 이곳 일대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바람이 불길 기대해 본다.

☉ 왜관을 석전리 석전로 일대(대화전원타운~효마실재가노인주야간보호전문센터)

핑크빛이 일렁이는 매원 분홍소풍길

왜관읍에 위치한 매원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매화낙지형(매화가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하여 마을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한다. 전국 최초 마을 단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연유 때 문인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칠곡군 명소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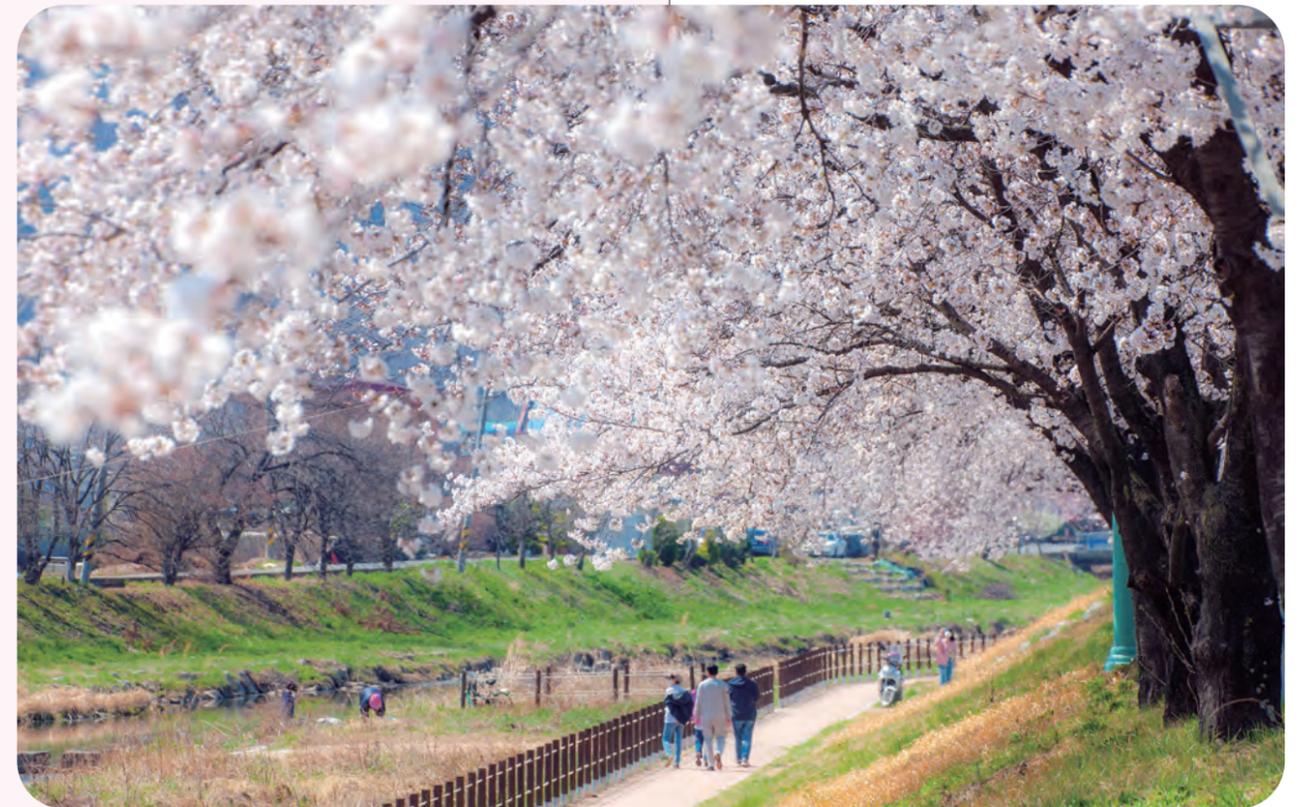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입구부터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아름다운 핑크빛 길을 만들어 상춘객들을 설레게 하는데, 이곳에 매원 분홍소풍길이 자리하고 있다. 매원 분홍소풍길은 매원사거리에서 매원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동정천 옆 도로를 따라 조성돼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산책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곳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함께 소규모 공원도 조성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경관 조명도 예쁘게 꾸며져 있어 늦은 저녁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그만이다.

매원 분홍소풍길은 지난해 9월 정식으로 개통됐다. 당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달빛소풍' 행사가 개최되었다. 버스킹 공연과 다문화 체험, 칠곡 로컬푸드 및 수공예품 전시판매는 물론 아간장터 등이 열려 인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매원마을 벚꽃축제 시기에 발맞춰 매원 분홍소풍길을 찾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왜관읍 매원리 매원사거리~매원마을 입구 일원



## 나는 예태미술관으로 봄나들이 간다!

바야흐로 찬란한 봄이다. 겨울이 단조로운 색으로 가득했다면 봄은 각양각색 다채로운 색으로 그 찬란함을 뽐낸다. 그래서일까.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미술관 나들이는 어째서인지 봄이 제격인 것만 같다. 지난해 개관한 예태미술관으로 봄나들이를 가보자!

### 문화예술을 향유하다

지난해 8월 개관한 예태미술관은 한옥 건물로 이뤄진 공예테마공원 안에 있다. '예태'는 '예전의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명칭처럼 개관 이래 다양한 분야의 아름다운 전시물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철곡군의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아트철곡2023: 땅의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땅의 시학', '철곡사람들' 등의 전시가 이뤄졌는데, 특히 지난 1월 28일까지 진행됐던 '철곡사람들'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뜨거웠다. 나눔과 선행으로 대통령실에 초청받은 초등학생들부터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쳐 글꼴을 만들고 래퍼로 변신한 할머니까지, 철곡군을 빛낸 30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통해 철곡 사람들이 가진 다양성과 가치를 드러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생동하는 봄을 느끼다

현재 예태미술관 1, 2전시실에서는 2024년 첫 전시인 '찬란한 울림: Life is vibrant'가 진행 중이며, 이 전시는 4월 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생동하는 봄처럼 우리 삶의 역동성과 울림을 다양한 층위로 표현한 조각가 김성수와 회화작가 임상빈의 2인 2색전으로, 총 31점의 작품이 각각 '사람을 만나다', '화학을 그리다'란 이름 아래 전시 중이다. 한국은 물론 현대 미술의 장에서 오랜 기간 꾸준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예술인들이다.

김성수는 조각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원시적인 생명력을 세련된 미적감각으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

서는 꽃밭, 인간 군상, 모빌 형태의 나무를 재료로 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임상빈은 사진과 그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적 시도를 하는 작가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화학(strokes) 시리즈 중 2022년 이후 작품들을 선보인다. 얽히고설킨 수많은 획,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붓의 터치감, 그리고 여러 색들이 우연히 만나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네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느껴진다. 생동감 있는 색채와 조형물로 구성된 특색 있는 작품들을 통해 우리 모두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철곡의 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Lively spring



Spring in full swing



Enjoy culture and art



### 예태미술관 info

- ☎ 운영시간 10:00~18:00
-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 ☎ 입장료 무료
- 📍 위치 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70-1
- ☎ 문의 054-979-3203



### 더 잘 즐기는 tip

- 공예체험방도 있어요  
철곡공예테마공원 지하에는 다양한 공예 분야의 공방이 입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예체험공방이 운영되고 있다. 다담은 도예(도자기), 그린공방(토탈공예), 수작(조항) 등 입주공방을 통해 미리 체험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공예체험공방의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 봄, 제철 맞이한 칠곡 벌꿀참외 드이쇼!

샛노란 껍질에 달큰한 향기를 품은 참외는 지금이 제철이다.  
꾸준한 품종개량과 비닐하우스 재배로  
어느샌가 제법 이른 2월부터 초여름까지  
오랫동안 만날 수 있게 된 참외다.

## 꿀벌로 수정하는 칠곡의 벌꿀참외

전국 참외 재배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경상북도에서 칠곡군 참외 재배농가는 500농가, 재배면적은 380ha로 성주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참외를 생산하고 있다. 칠곡군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해 지리적 여건상 지하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들이 넓어 일조량이 많아 예로부터 참외 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혀 왔다. 양봉특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참외에는 '벌꿀참외'라는 브랜드명이 붙는다. 꿀벌을 이용한 자연수정 방식으로 참외를 재배하기 때문이다.



## 인공이 아닌 자연이 빚어낸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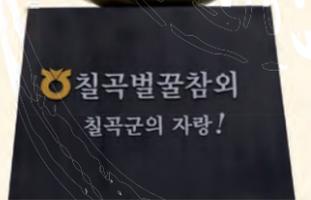
이 수정법은 지난 1996년 칠곡 양봉연구회 박명우 회장이 개발한 자연형 수정 방식이다. 참외 재배 비닐하우스에 꿀벌을 투입해 벌들이 참외를 수정시킨다. 이 방식이 개발되기 전까지 당시 참외 농가들은 착과제를 이용해 인공 수정하는 방식으로 참외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신기술인 셈이다. 벌꿀참외는 꿀벌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일반 참외에 비해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아삭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게다가 꿀벌과 참외를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사용해 친환경적이다. 여기에 신선도와 향, 색깔까지 모두 뛰어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 아삭하고 달큰해요!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칠곡군의 대표 농산물 벌꿀참외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높은 당도와 뛰어난 맛 덕분인지 전국에서 벌꿀참외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 칠곡군 참외발전연구회 신원철 회장은 "지난 겨울 한파와 일조 부족, 높은 밤낮 기온차 등으로 인해 참외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꿀참외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재배농가가 최선을 다했다"며 "벌꿀참외 우수성이 지금보다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벌꿀참외 고르는 법

- 선명한 노란색을 띠며 광택이 나는 것
- 꼭지가 시들지 않은 것
- 껍질이 얇고 육질이 치밀한 것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곡은 지금, 'eco철곡'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환경도시, 녹색도시, 생태도시 등으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대변화를 꾀하고 있다.  
'친환경'은 어느샌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철곡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작지만 담대한 한 걸음을 막 내딛기 시작했다.



# ECO CHILGOK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탈(脫)플라스틱 전환

지난 3월, 철곡군은 전 직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조금은 특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탈(脫)플라스틱 전환 다짐' 서약식이었다.  
이 서약은 올 한 해 철곡군이 추진하는 'eco철곡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철곡군에서부터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의지를 다짐한 것이다.  
이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철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줄이며, 개인컵 사용을 생활화 ▲플라스틱 용기 사용 지양, 친환경 녹색제품을 사용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1회용품 활용한 다과와 음료를 제공 금지 ▲ 일상생활 속 친환경 문화 확산 노력 등 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약의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됨을 잘 알고 있다. 철곡군은 이번 서약을 통해 "그게 아무리 '번거로울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 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이런 움직임이 철곡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 모두 다 함께 eco철곡

서약식 이후로 철곡군청 직원들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을 실천 중이다.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을 습관화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이나 개인 텀블러를 꼭 사용하고자 한다. 김재욱 철곡군수 역시 관용차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로 직접 출퇴근하며 eco철곡을 위해 열성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철곡군에서 올 한 해 'eco철곡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계획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연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기후위기 시대라 불리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녹색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여주고자 철곡군에서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eco철곡 프로젝트'인 것이다.



## 친환경 도시 철곡을 위해

철곡군은 'eco철곡 프로젝트'의 비전을 '모두 다 함께 친환경 도시 eco철곡'으로 세우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철곡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로드맵 확정과 함께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캠페인 및 챌린지, 환경교육 등을 철곡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방안도 모색 중이다. 주민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이 해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철곡 전체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일은 어렵다. '탈(脫)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목표로 삼았다고 해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생기는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의 지구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칠곡 할머니들이 만드는 유일무이 K-할매 콘텐츠

젊게! 힙하게! 활기차게!

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 없던 새로운 실버문화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칠곡 할머니들의 활동이 'K-할매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의 변신을 예고했다. 실버문화에 혁명을 일으킨 칠곡 할머니들의  
활기찬 삶의 행보를 이곳에 기록해 본다.



칠곡할매글꼴 5종

할머니들의 개성 강한 글씨체로 제작된 칠곡할매글꼴 - 김영분체

할머니들의 개성 강한 글씨체로 제작된 칠곡할매글꼴 - 권안자체

할머니들의 개성 강한 글씨체로 제작된 칠곡할매글꼴 - 이원순체

할머니들의 개성 강한 글씨체로 제작된 칠곡할매글꼴 - 이종희체

할머니들의 개성 강한 글씨체로 제작된 칠곡할매글꼴 - 추유을체



## 'K-할매 콘텐츠' 확산 예고

칠곡군에서 시작돼 젊은층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K-할매 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칠곡군은 대한노인회와 칠곡형 'K-할매 콘텐츠' 확산 업무협약식을 서울에서 가졌다. 로이터, AP, 중국CCTV 등 세계 주요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칠곡 할머니들의 활동을 'K-할매 콘텐츠'라고 명명하며, 전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칠곡군은 향후 칠곡 할머니들의 활동 현황과 성과를 전국에 전파하고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년층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며 문화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칠곡 할머니들이 증명한 셈이다. 칠곡 할머니들의 대활약으로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의 격전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 도시'라는 타이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할매 문화 일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 열풍의 시작, '칠곡할매글꼴'

'K-할매 콘텐츠'는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개성 강한 글씨체로 제작된 칠곡할매글꼴에서 그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2019년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칠곡 가시나들' 덕분에 정구 한글교육을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의 이야기가 알음알음 관심을 받던 와중에 탄생한 칠곡할매글꼴 5종(김영분체, 권안자체, 이원순체, 이종희체, 추유을체).

친근감이 느껴지는 서체와 각 글꼴이 품고 있는 칠곡 할머니들의 스토리가 더해져 사람들은 너도나도 칠곡할매글꼴에 매료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2021년 칠곡할매글꼴을 유물로 지정하고 영



로이터 통신이 지난 2월 13일 보도한 할매 래퍼 관련 기사

니들의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로이터는 칠곡 할머니 래퍼 그룹에 대해 “농촌 생활에 대한 랩을 통해 인구 침체로 위협받는 조용한 시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고향과 그 너머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성공은 한국이 이르면 내년에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주체적이고 풍요로운 인생 그막을 열어라!

현재 칠곡군에서는 평균 연령 85세의 8인조 래퍼 ‘수니와칠공주’ 외에도 ‘보람할매연극단’, ‘우리는 청춘이다’, ‘어깨동무’ ‘텃밭 왕언니’, 총 다섯 개의 랩 그룹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수니와칠공주는 지난해 10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응원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대한민국의 할머니 래퍼 존재를 전 세계에 알렸다. 또 이때 맺은 한덕수 총리와 인연을 바탕으로 최근 서울 청암중·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축하 영상을 전하며 늦깎이 학생이 된 어르신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칠곡군은 반복되는 가사를 암기하고 간단한 손동작으로 춤을 추는 랩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랩을 활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내놨다.

이런 칠곡 할머니들의 활약은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로 칠곡 할머니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평생 학습을 위한 공간인 할매문화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 2월 28일 ‘칠곡 할매문화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사업은 왜관읍 202번지 일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640㎡, 약 800평) 건물에 전시실, 공연장, 교육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어르신들이 인생 2막을 가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령층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인구 천만 시대,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칠곡군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칠곡군만의 새로운 문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구보전하기로 했으며, 한컴오피스, MS워드, 파워포인트 등은 칠곡할매글꼴을 정식 글씨체로 선보였다.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이한 대통령의 연하장에도 칠곡할매글꼴이 사용됐을 정도다. 지난해 3월에는 제주에서 최연소 천재 동화작가로 이름난 전이수 군과 ‘괜찮아’라는 주제로 공동작업한 칠곡할매글꼴 특별기획전까지 열렸다. 꾸준한 인기에도 힘입어, 칠곡군은 올해 가독성을 개선시킨 칠곡할매글꼴 5종에 대한 리뉴얼 버전을 내놓기도 했다.

### 랩 ‘때리는’ 할매 래퍼, 세계가 주목하다

“황학골에 셋째 딸로 태어났쓰! 오빠들은 모두 공부 시켰쓰! 딸이라고 나는 학교 구경 못했쓰!”(수니와칠공주)

“소밥 주다 개밥 줘. 개밥 주다 소밥 줘. 그래도 난 연습해. 랩을 매일 연습해.”(보람할매연극단) 칠곡 할머니들의 변신은 무한했다. 지난해 여름 성인 문해교육 과정 중 랩 영상을 처음 접한 할머니들은 랩에 큰 흥미를 보이며 래퍼 그룹을 결성했다. 직접 적어내려간 가사로 지난해 11월에는 왜관읍 점오골목축제에서 프리스타일 랩 배틀까지 펼치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칠곡 할머니들로 결성된 래퍼 그룹이 내뿜는 그들만의 거침없는 랩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로이터 등 외신 취재가 잇따르면서 ‘K-할매 콘텐츠’로 떠오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13일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서 평균 연령 85세의 8인조 할머니 래퍼 ‘수니와칠공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Down on the farm, South Korean granny rappers drop the beat(농장에서, 한국 할머니 래퍼들의 비트 주세요)’ 제목의 기사에는 금속 장신구와 혈령한 바지를 입고 춤을 추며 랩을 하는 할매





# 경북 최강 철곡군청 레슬링팀을 만나다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싸움 방식 중 하나인 몸싸움에서 유래된 격투 종목 스포츠 레슬링. 유리한 위치를 재빠르게 점하고 각종 기술을 이용해 점수를 따내는 레슬링은 오랫동안 올림픽의 효자 종목이었다.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군민의 사랑을 받아온 철곡군청 레슬링팀, 새로운 선수·감독으로 새 단장한 철곡군청 레슬링팀을 만났다.

## 올해로 30주년 젊은 피 수혈한 레슬링팀

철곡군청 레슬링팀은 우수한 레슬링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4년 5월 처음 결성됐다. 올해로 창단된 지 딱 30주년이다. 오랜 역사만큼 지금까지 보여준 레슬링팀의 성적은 누가 나무랄 것도 없이 훌륭하다. 직장운동경기부로 등록된 전국 49개의 레슬링팀 가운데 철곡군은 늘 강팀에 속한다. 전국체전에서 많게는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 매해 금메달 1개 이상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과거 철곡군청 소속이었던 이유미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무려 9회 연속 금메달을 땀을 정도다. 이처럼 철곡군청 레슬링팀은 회장기 레슬링 대회는 물론 경북도민체전, 전국체전을 넘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써내려가며 철곡군의 위상을 함께 드높이고 있다.

올해 레슬링팀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와 사뭇 다르다. 전체 6명의 선수 가운데 무려 5명의 전도유망한 젊은 피들이 수혈됐다. 신임감독도 올해부터 부임했다. 팀 내 세대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재강 신임감독은 무려 12년간 철곡군청 레슬링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지휘봉을 잡은 만큼 누구보다 더 철곡군청 레슬링팀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새로운 감독과 선수 영입은 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3월 19일부터 3일간 열린 제42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는 박부봉 선수와 김민서 선수가 각각 그레고로만형과 자유형에서 2위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것이다. 김 감독은 “새롭게 발굴하고 영입한 5명 중 3명은 대학을 졸업한 신인이다”며 “훌륭한 선수로 육성해서 철곡군을 위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 레슬링팀의 각오 한마디! 철곡군민께 인사드립니다!

철곡군을 위해 뛰는 레슬링팀 선수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올 한 해 감독 및 선수들의 훌륭한 성적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김민서 선수(125kg급 · 자유형)**  
올 한 해 꾸준하게 열심히 훈련해서 부상 없이 시합마다 메달을 꼭 따고 싶습니다.



**김용욱 선수(79kg급 · 자유형)**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 선수(74kg급 · 자유형)**  
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출전하는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박상민 선수(65kg급 · 자유형)**  
부상 없이 연습한 만큼 시합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중일 선수(57kg급 · 자유형)**  
지난해 부상이 있었던 만큼 올해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려 예전처럼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박부봉 선수(55kg급 · 그레고로만형)**  
몸무게 감량을 통해 체급을 맞춰서 올 한 해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1등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곳곳에 울려 퍼지던 독립의 함성  
칠곡의 독립유공자

강원형·장석영·장진홍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물결은 들불처럼 번져 같은 달 12일, 칠곡에도 예외없이 다다랐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서슴없이 앞장섰던 이들, 칠곡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아보자.

상소로 일본을 규탄한  
**강원형**  
(姜遠馨, 1862~1914)

출생지: 칠곡군 지천면 신리  
훈격(연도): 독립장(1980)



**명성황후 시해로 본격화된 항일투쟁**

강원형은 1895년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에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5년 1월 대한십삼도유약소(大韓十三道儒約所) 설치 후 일본의 침략정책과 내정간섭을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펼쳤다. 1905년 3월 최익현(崔益鉉)·김학진(金鶴鎭)·허위(許蔭) 등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격문을 돌렸다는 이유로 일본 헌병에 구속되자 일본군사령부에 공개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일본의 불법을 규탄하고 3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 45일간 구속된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소식에 통분하여 13도 유생을 대표해 상소를 두 차례 올리며 그 부당성을 호소했다. 을사늑약 파기, 을사5적 처단 요구, 시민들의 국권회복 결기를 호소하다 1905년 11월 28일 경무청에 붙잡혀 4개월간 투옥 생활을 보냈다. 국권 피탈 후 상경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1914년 객지인 서울에서 사망한다. 이후 1980년 독립장이 추서됐다.

**그를 기린 기념비와 추모관**

그의 항일정신을 기리며 지천면에 세웠던 강원형 애국지사 기념비가 자리를 옮겨 왜관을 애국동산에 있으며 또 그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그의 호를 따 지은 혜사정이 지천면 심천리에 있다.

▷ 강원형 혜사정



영남유림의 투쟁을 이끈  
**장석영**  
(張錫英, 1851~1926)

출생지: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훈격(연도): 독립장(1980)



**을사5적 처단을 상소하다**

이명(異名, 본명 외 이름) 장석교(張碩敎). 장석영은 영남지방의 유림으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있자 이승희(李承熙)·곽종석(郭鍾錫) 등과 더불어 5적을 참하라는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疎)'를 고종에게 올렸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칠곡의 보상회장(報償會長)으로 추대돼 활약하기도 했다. 1912년에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와 이주 한인들의 동태를 기록한 '요좌기행(遼左紀行)'을 저술했다.

**독립청원서 초안 작성**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1차 유림단 의거를 이끌며 청원문 초안을 작성하고 유림대표 137명 중 1인으로 서명했다. 1919년 성주 장날인 4월 2일 연합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혀 8월 21일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귀향해 세운 만서정**

1923년 외지 생활을 접고 각산마을로 돌아와 1926년 강학 장소인 녹동서당(당시 만서정)을 창건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세했다. 독립장은 1980년 추서됐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 18일 칠곡군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대사에게 장석영이 작성한 파리장서 초안이 담긴 서책을 전달하며 프랑스 도서관에 기증 의사를 밝힌 뒤 파리장서 외국어 번역문이 있으면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 장석영이 세운 녹동서당(당시 만서정)



↳ 장진홍 묘소

**광복단에 가입하다**

장진홍은 1916년 비밀독립운동 단체 광복단(光復團) 가입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국내, 북경을 오가며 항일 투쟁을 펼쳤다. 1918년 하바로프스크에서 교포 청년 80여 명을 모집해 군사교육을 실시했고, 1919년 3·1운동 때는 일본의 잔학상을 조사하여 미국 군함 승무원 김상철(金相哲)에게 전달해 각국에 배부를 의뢰하기도 했다.

**폭탄으로 결의한 독립**

1925년 대구에서 이정기(李定基)·이원기(李源祺)·이원록(李源祿)·이원유(李源裕) 등과 비밀결사를 조직한 뒤, 1927년 3월 폭탄 전문가에게 제조 기술을 습득했다. 그 해 10월 18일 경북도청·경북경찰부·조선은행 대구지점·식산은행 대구지점 네 곳의 폭파를 시도한다. 조선은행 대구지점에서 처음 폭탄이 터지고 은행원·일제경찰 등 5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후 안동, 영천 등에서 다시 거사를 도모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28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은신하지만 1929년 2월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은신처가 들통나 붙잡히게 된다.

**석적읍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1930년 35세의 젊은 나이로 옥중 자결 순국했다. 1962년 독립장이 추서됐다. 그의 묘소는 현재 석적읍 남울리 산7-2번지에 남아 후손들이 돌보고 있다.

죽음을 불사한 항일  
**장진홍**  
(張鎭弘, 1895~1930)

출생지: 칠곡군 인동면 옥계동(현 구미시)  
훈격(연도): 독립장(1962)





박성권

배효영

안병문

이현우

“농업 발전과 후계농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 농촌지도자 농업기술 명장 4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선정하는  
‘2023년 농촌지도자 농업기술명장’ 명단에  
철곡 농업인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신만의 농업기술 노하우로 농업 발전은 물론  
후계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들의 양 어깨에 책임감이 묻어났다.



## 농업에 대한 자긍심이 키워낸 명장

지난해 11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농민회관에서 ‘2023 농촌지도자 농업기술명장 비전선포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 농업과 후계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현장 농업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농업인들에게 수여하는 농촌지도자 농업기술명장 선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 중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 40명이 선정됐는데, 철곡에서는 박성권(벼, 가산), 배효영(포도, 왜관), 안병문(참외, 왜관), 이현우(한우, 약목) 씨 등 무려 4명이 명장의 타이틀을 부여받는 영예를 누렸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농촌지도자 농업기술명장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다음 세대 농업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업기술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자신의 농업 분야에 대해 뛰어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농업기술명장에 선정된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명장 인증서’가 수여된다.

명장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체득한 품목별 현장 농업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귀농인, 품목 전환 희망 농업인 등에게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여 후계 세대의 영농 정착과 농촌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농업기술명장 4인에게 듣다

‘명장’이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타이틀인 만큼 농업기술명장에 선정된 철곡 농업인들의 각오는 남다른 것 같다.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이들도.

### 박성권 씨 —벼, 가산

벼농사를 지은 지 40년 이상 됩니다. 지역에서 모를 드물게 심는 소식재배를 앞장서서 한 것이 인정돼 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생산비 절감 효과가 뚜렷하면서도 수확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제 많은 농가들이 소식재배를 하고 있죠. 이런 재배법을 지역 농가들과 논의하고 타 지역 이야기도 공유해 가면서 벼농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안병문 씨 —참외, 왜관

벼농사, 포도재배와 함께 참외도 기르고 있습니다. 참외만 25년 이상 다뤘었지요. 1985년도에 귀농해 왜관에 자리했으니 시간이 꽤 흘렀네요. 그 사이 새농민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을 만큼 농업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철곡군참외발전연구회 교육에도 20여 년 가까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참외에 대해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참외는 성주가 유명하다 하지만 수확시기 조정으로 틈새를 노려 홍수출하를 피한다면 참외농가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배효영 씨 —포도, 왜관

관내에서는 제가 포도를 가장 먼저 재배했지 싶습니다. 벌써 40년도 넘었네요. 캠벨, 머루포도, 거봉, 그리고 샤인머스캣에 이르기까지 여러 품종을 기르며 쌓인 노하우를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옛 어른들이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기술과 인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 부분만이라도 제 노하우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작목반의 다른 농가들과 함께 말입니다.

### 이현우 씨 —한우, 약목

올해로 31년 차 이 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은 그 품질에 따라 가격 격차가 심합니다. 축산인들 역시 고품질을 생산해 내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지요. 저 역시 고품질의 육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0여 년 전부터 우수형질의 소를 얻기 위해 개량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별도의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지역 농가와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COUNCIL NEWS**  
**의/회/소/식**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원발의조례안 등 안건 6건 의결 및 신년 업무보고 실시**

칠곡군의회(의장 심정보)는 지난 2월 7일에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5건(의원발의 1건)을 의결하고 의회건의 1건을 채택했다.

제297회 임시회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일까지 조례안 5건과 의회건의 건 1건을 심의하고 2월 2일부터 6일까지 칠곡군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각 상임위원장은 “신년 업무가 원칙에 입각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火葬)시설 기반 구축 제안**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은 2월 7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장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사망률 증가에 따른 화장장 시설 부족 현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달성을 위한 화장시설 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인근 지역 화장장 이용료는 당해 지역 주민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군민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장했다.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군의회 통과 이목 집중**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북삼·약목·기산)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월 7일(수)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칠곡군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 보고체계 등을 담았다.



**제2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원발의조례안 등 안건 6건 의결 및  
 재난재해 예방활동**

칠곡군의회(의장 심정보)는 3월 5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5건(의원발의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의결했다.

제298회 임시회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안·제출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안건 6건 중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임시회 개최 전부터 사전 토의를 거쳐 의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했다.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해야’**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5일(화)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내용은 △공동주택지원 유사사업 시행 후 5년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시행주기를 단축하고 수혜범위를 확대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지원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500세대 이상인 단지의 자부담 비율 축소로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칠곡 소식지

칠곡 소식지가 군민 여러분들께 더욱 다가가기 위해  
2024년 봄호부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 봄호를 읽고 난 후 소감을 들려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목소리, 한 문장, 한 글자까지 마음에 새겨  
앞으로 더 나은 칠곡 소식지를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채택된 글은 다음호에 일부 수정·게재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_ 2024년 5월 3일까지  
참여방법\_ 아래 QR코드 스캔을 통한 모바일 참여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정성스레 후기를 보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여자 중 한 분을 무작위 선정하여 가족사진으로 고급 아크릴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퍼즐로 만나는 칠곡의 명소

아름다운 칠곡의 풍경을 퍼즐로 완성해 주세요.  
응모하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신유장군유적지



### 신유장군유적지

1982년 8월에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조선 효종 때 무신인 신유[1619~1680]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신유 장군은 약목면 복성리 출신으로 1658년(효종 9) 청국의 원병 요청으로 당시 함경북도의 병마우후로서 제2차 나선정벌의 영장으로 북병영의 정예 포수 2백여 명을 주축으로, 총병력 265명을 이끌고 만주의 헤이룽강까지 출병하여 남하하는 러시아의 스테파노프 부대를 격파함으로써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 [응모 안내]

응모 기한 2024년 5월 3일까지(기한 내 응모만 인정)  
응모 방법 QR코드 스캔을 통한 모바일 참여  
응모 혜택 기한 내 응모자에 한해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기프트콘을 보내 드립니다.

